

# 꽃과 어우러지는 힐링지역 만든다

### 임실군, 작년보다 38% 증액된 9억7700만원 예산 투입 경관조성사업 탄력

임실군이 계절마다 꽃과 숲이 어우러지는 대표적인 힐링지역으로 발돋움한다.

지역민에게 보다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 사업 등에 분주해지고 있다.

군은 올해 경관조성사업에 총 9억7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 해(7억5000만원)보다 38% 이상 증액된 수치다.

임실군이 올해 추진하는 경관조성사업은 크게 5가지다. 대표적으로 도시숲과 가로수 조성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특히 도시숲 조성사업은 지난 해 4억원에서 올해 8억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예산을 많이 확보해 탄력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보행자와 운전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이동공간을 제공하고, 지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 확대와 국토 녹색네트워크의 연결축 기능을 대폭 보강한다.

이와 함께 마을주변 쉼터리움을 활용한 쉼지 조성사업과 각종 재해 영농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가로수 전정사업도 병행한다.

또한 퇴비 작업을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관조성지 시비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시계절 내내 꽃과 함께 할 수 있는 계절꽃 식재사업을 활발히 진행한다.

계절꽃 식재사업은 지역 곳곳에서 시계절 내내 꽃을 볼 수 있도록 시가지 꽃박스와 화단에 계절꽃을 식재한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수를

를 사시사철 만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해에도 임실을 감성리 일대에 소공원 조성 및 도시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했다.

강진면과 운암면 등 주요 도로변 약 5.2km 구간에 가로수를 조성하고 임실읍과 지사면에 철쭉류 4000여본을 식재하는 등 낯다른 꽃사당을 살렸다. 또한 임실읍 시가지에 꽃 박스를 활용한 다양한 계절꽃 식재를 통해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선사했다.

금성리 치즈마을 방영천 일원에도 철쭉류 6700여본을 식재하는 등 치즈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주민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 큰 인기를 끌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군, 올해 첫 전국당뇨캠프 개최

### 환자·전문 운영진 100여명 참여... 당뇨치유법·건강순창 체험 실시

당뇨 등 만성질환 치유를 관광과 식품산업으로 연계해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순창군이 올해 첫 전국당뇨캠프를 시작한다.

당뇨캠프는 전국의 당뇨환자와 가족들이 당뇨에 대해 이론과 체험, 검진, 힐링프로그램을 통해 효과적 당뇨치유법을 익히고 당뇨 관리의 실천의지를 고취하는 대규모 전국단위 당뇨행사다.

순창군이 주최하고 (사)한국당뇨협회, 대한당뇨병학회가 주관하며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며 전북대학교병원, 조선대학교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다.

올해 첫 전국당뇨캠프는 순창간강장수연구소 일원에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전국에서 모인 당뇨

환자와 가족, 의료진 등 100여명이 참여하며 의료분과, 간호분과, 영양분과, 운동분과, 사회복지분과 전문가들이 운영을 맡는다.

특히 올해 교육은 20명씩 3개조로 나눠 4가지 테마별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료, 간호, 영양, 운동, 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당뇨발관리, 저혈당체험, 인슐린치료요법, 식사치유요법 등을 직접 체험하며 배운다.

특히 식사치유요법에서는 전북대학교 병원 영양팀이 참여해 순창의 정경농산물 등을 활용한 저혈당 식단을 기본으로한 치유법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혈당측정, 당화혈색소, 콜레스테롤, 인바디검사, 치매검사 등 기본적인 검진

프로그램도 진행해 환자들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캠프기간 치유상태도 점검한다.

아침제조, 산책, 운동요법 등도 병행해 추진한다. 특히 치유의 숲 강건 걷기 프로그램 등 지역의 자원을 체험과 연계해 추진해 효과를 배가 시킬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첫 당뇨캠프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면서 "전국에 당뇨환자와 가족들에게 당뇨 완치의 희망을 심어주고 순창을 당뇨 치유의 일번지로 알리기 위해 캠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당뇨캠프에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건강강장수연구소 전화 063-650-1527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이왕원 기자

# 순창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순창군은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나 유출 우려가 있는 군민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의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경제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

소하고 정보 유출로 인한 2차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신병에 의해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된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꾸고자 할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와 입증자료를 갖춰 읍면사무소에 신고

### 이달 30일부터

하면 군에서는 이를 행정자치부로 변경 결정 청구를 하고 이후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의 사실조사와 검토,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뒤 6자리를 변경할 수 있다.

/순창=이왕원 기자



# 내일 섬진강 길 걷기 여행 개최

### 김용택 시인과 진메마을에서 구담마을까지

섬진강 시인으로 유명한 김용택 시인과 함께 하는 섬진강길 걷기 여행이 오는 13일 개최된다.

섬진강 길은 김용택 시인의 '눈썹 만큼도 지루하지 않은 길'이라 평가할 만큼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답고 서정미 넘치는 강변길로 손꼽힌다.

이날 걷기 여행은 김용택 시인이 거주하는 진메마을에서 천담마을을 거쳐 구담마을까지 섬진강 걷기의 백미로 알려진 6.7km 구간에서 진행된다.

이 길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2011년 섬진강문화생태탐방로로 지정된 걷기코스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닌 전국 최고의 걷기 명소가 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된 이번 행사에는 서울, 부산 등 전국 각지의 도보여행 동호회 및 일반 관광객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사전행사로는 섬진강 길 걷기에 앞서 유네스코 세계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된 필봉농악 전통문화 체험과 사물놀이, 국악공연, 퓨전 창작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점심시간에는 다슬기탕, 매운탕 등 지역의 딱거리를 맛볼 수 있다. 이외에도 임실군 대표 특산물인 임실N치즈 판매 및 마을 주민들이 직접 채취한 농산물로 만든 시골 맛 물신 풍기는 음식들도 여행객을 기다리고 있다.

본 행사에서는 김용택 시인과 대화의 시간과 더불어 동행하며 도보 걷기 여행이 시작된다.

걷다가 쉬어가는 코너로 퀴즈풀이도 진행된다. 퀴즈풀이에서는 퀴즈도 즐기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마련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추경예산 6436억원 편성... 시의회 제출

이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당초예산 5,185억원보다 659억원(12.7%↑)이 증가한 5,844억원, 공기업 포함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569억원보다 23억원(4.0%↑)이 증가한 592억원으로 편성됐다. 지역현안사업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중 마무리사업과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에 중점투자 되었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공공행정 62억원, 문화및관광 120억원, 사회복지 21억원, 농림해양수산 79억원, 산업및중소기업 20억원, 수송및교통 51억원, 국토및지역개발 287억원 등이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중앙공원조성을 위한 구역사부지매입 78억원, 남원일반산단단지조성 40억원, 고생지

구조성 10억원, 의회청사 증축 21억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7억원,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현대화 10억원, 경로당 특별 냉난방비 지원 9억원, 교통대로개설 10억원, 네마실1길 소로개설 12억원, 화정~대음간 도로확포장 7억원, 산성신 농어촌 도로확포장 7억원, 지방채 전액 조기상환 8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시에 따르면 연이율 2.0%의 고급리 지방채 81.5억원을 순세계잉여금 일부로 전액 조기상환하여 3억원의 이자를 절감하는 혁신적인 재정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지방채 조기상환 147.6억원과 차환 81.5억원을 추진하여 25억원의 이자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 지역 소식통

## '썩썩농부 프리마켓' 운영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환중)에서 육성한 남원의 작지만 강한 농업인 '강소농'이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랑의광장 앞 요천둔치에서 농가소득 10%향상을 목표로 '썩썩농부의 프리마켓'을 운영한다.

썩썩농부들 프리마켓은 10월까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에 남원 강소농(대표 박희숙) 30여명이 오미자, 잡곡, 블루베리, 산채나물 등 1차 농산물, 식품제조 허가를 받은 농가의 과실즙, 생들기름, 한과, 송편, 장류 등의 가공제품, 농가가 직접 제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판매할 예정이다.

썩썩농부들 프리마켓은 유통단계 없는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만남의 장터로 농가에게는 소득 10% 향상, 소비자에게는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값싸게 제공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유영철 기자

## 황숙주 군수, 우박피해 현장 방문

황숙주 군수의 발빠른 민생행보가 눈길을 끌고 있다. 황군수는 11일 아침 새벽 기습 우박이 내린 쌍치면 현장을 찾아 피해상황을 살피며 대책방안 강구를 지시했다.

쌍치면 일대에서는 이날 새벽 5시경부터 10분정도 지름 5mm~2cm가량의 기습적 우박이 쏟아졌다. 이로 인해 담배와 불배추, 블루베리, 오미자 등에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쌍치면에서는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다.

우박피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기준은 시·군별 농작물 피해면적이 30ha 이상일 경우다.

/순창=이왕원 기자

## 임실군,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임실군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11일과 12일 양일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임실을 경유하는 17번 국도 등에서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대기오염 중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은 비디오키메라를 활용해 매연과 과다 발생 여부를 확인해 과다발생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라 차량소유자가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 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도록 개선권고를 내릴 방침이다.

또한 버스 및 화물차 등이 등록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주택가나 대로변에 장시간 시동을 켜놓은 공회전 차량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임실=진홍영 기자



## 순창 종합 사무기기

TEL: 063-653-5002  
H.P: 010-6633-4070

**팀장 이동선**

<렌탈전문>







